

지역 매아리

전국체전 봉송 주자 모집
완주군, 30명 25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전국체전 성화 봉송 주자를 모집한다.

완주군은 오는 10월 전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시작을 함께할 성화봉송 주자 30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성화봉송 주자는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으로 건강상 성화봉송에 문제가 없는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희망하는 군민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완주군청 관광체육과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성화봉송은 삼례문화예술촌을 출발해 봉동터미널까지 4개구간(주자3, 차관1)으로 나눠 진행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에스에스테크 직원 3명 기부 실천
김제 교월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김제시 교월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우근)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약화로 청년실업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담당자 취업에 성공하고 소외계층에게 아름다운 기부까지 하는 청년들이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김제시 봉황농공단지에서 소재한 코일제조업 회사 에스에스테크 직원 3명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부누리 지원금을 자신보다는 소외계층을 위해 쓰고 싶다는 교월동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였다.

최정오씨(27), 윤태원씨(24), 이지혜씨(21) 등은 90년대 생의 사회초년생들로 농촌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조금이나마 돕고 싶어 소중한 급여지만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교월동맞춤형복지팀은 저소득층과의 결연을 위해 에스에스테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청년들이 원하는 장애인세대와 한부모가정이 따뜻한 동행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후원금은 7월 25일부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체되며 지적장애인부부세대 월 5만원, 다자녀 한 부모가정에 월 7만2천원씩 2년간 정기기부 될 예정이다.

이들의 기부로 인해 과중한 교육비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레관리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우근 동장은 "내 뉘를 선택 나누는 작은 기부영웅들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아름다운 기부 결정을 한 청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가 지난 1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축제&기업 상생부문'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

김제지평선축제, 글로벌 축제 우뚝

'축제&기업 상생, 홍보제작, 상품부문'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 3개 부문 수상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 김제지평선축제가 지난 1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Pinnacle Award Korea)에서 '축제&기업 상생부문' 등 3개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축제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는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에서 주최하는 축제분야 국내 최고의 상으로 국내 축제문화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07년 도입, 매년 경쟁력있는 축제를 분야별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다.

김제지평선축제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 농경문화를 세계인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자체와 기업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축제를 발전시키는 등 대한민국 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의 축제기관상-축제&기업상생 부문과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상-홍보제작, 상품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서의 명성을 어김없이 발휘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국내 축제분야 최고의 상인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올해로 상년을 맞이한 지평선축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 수용 공간 및 먹거리를 확충하여 글로벌 육성축제 품격에 맞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된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는 2018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주 행사장인 벽골지에서 오감을 만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 농경문화를 세계인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자체와 기업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축제를 발전시키는 등 대한민국 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의 축제기관상-축제&기업상생 부문과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상-홍보제작, 상품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서의 명성을 어김없이 발휘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국내 축제분야 최고의 상인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올해로 상년을 맞이한 지평선축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 수용 공간 및 먹거리를 확충하여 글로벌 육성축제 품격에 맞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된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는 2018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주 행사장인 벽골지에서 오감을 만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에 두 번째 나눔냉장고 문 열다

용진읍 대영아파트 주민 자발적 요청... 관리도 직접 맡아

완주군에 나눔냉장고 2호점이 문을 열었다.

지난 13일 완주군은 용진읍 대영아파트에 나눔냉장고 2호점 문을 열었다. 이서면 혁신도시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들이 직접 설치를 요구해 성사됐다.

대영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아파트 텃밭에서 생산되는 채소를 이웃과 나누고 싶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주민들은 용진읍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건의했다.

직원들은 이를 1111사회소통기금의

배분사업으로 연결시켜,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나눔냉장고 2호점 문을 열게됐다. 용진읍의 나눔냉장고는 '오아시스 나눔냉장고'라는 이름을 걸고 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자리를 잡았고, 향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대영아파트(이장 조택중)입주자 모임에서는 자체적으로 위생상태 청결 유지를 위해 요일별 봉사자를 지정하여 관리·운영하기로 하였다.

나눔냉장고 2호점이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용진읍 지역사회보장협

의체 위원들과 관내 여러 업체에서 참여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현춘식품, 우림식품, 정산식품, 용진떡집, 쫄면떡집, 레향동조합, 이웃민영농조합 등이 벌써부터 나눔냉장고를 가득 채웠다.

나눔냉장고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필요할 때 음식을 누구나 가져갈 수 있으며, 나누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언제나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다.

최우식 용진읍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나눔냉장고 2호점이 문을 열게됐다"며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나눔문화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공공시설 설치

완주군이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에는 입주예정자단체 당 1억원 이내에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의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대상은 입주자수도형으로 10호 이상 규모의 신규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단체로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 포함)를 100% 확보해야 한다.

완주군 지역 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시민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입주예정자 집단을 확보하여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사업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자료와 현장확인 후 평가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게 된다. 사업신청은 내달 8월 10일까지 완주군 도시개발과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고시/공고)의 '2018년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시개발과(063-290-2842)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친인척, 지인 및 동호인 등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끼리 마을을 조성해 이주 할 경우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 형성으로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출범

관련분야 전문가·군의원·변호사·시민단체 등 구성

완주군이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심의기구인 '완주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 13일 완주군은 갈등관리분야 전문가와 군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등 10명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강제적인 권한은 없지만 갈등관리 전문가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2018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계획을 보고 받고 첫 번째 안건으로 고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관련 갈등을 심의했으며, 갈등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대응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의결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무릎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관절염 증 치료지원 신청서를 연중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1953년)으로 의료급여 1, 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퇴행성관절염 환자이며, 수술비 지원 범위는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한쪽 무릎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반드시 수술 전에 보건소에서 접수하여 서류검토 후 대상자로 추천되면 3개월 기한 내 전국 어느 병원이든 지원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을 수 있다.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를 청구하면 재단은 대상자에게 수술비를 송금해 준다.

무릎관절염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소리 없이 노인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 밤잠을 설치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고스스로 하부하루를 보내는 등 퇴행성관절염 고통으로 살아가면서도 경제적 이유, 수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파스 한 장에 의존하거나 단순히 통증완화 주사 혹은 진통제만으로 버티다 상태를 악화시키는 과정을 겪는다.

김형희 김제시보건소장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어르신들께 희망을 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카약 ATV / 버기카

스키/보드 펜션/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동계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질기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머티 지역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	---